

북스

어린이 책꽂이



▲빨간 우체통과 의사 선생님의 편지=편지의 기쁨을 따뜻한 감동으로 느낄 수 있게 하는 그림책. 어느 산기슭에 있는 치과의사 선생님은 어머니에게 편지를 써야 한다고 마음먹지만 어떻게 써야 할지 몰라 막막하다. 그러던 어느 날 아기 다람쥐의 앞니를 치료해주고 이 소문을 듣고 찾아온 동물친구들이 대신 편지를 써준다. <웅진주니어·1만원>



▲공부 도와주는 비교 사전=세상의 최대, 최고 등 기네스북에 버금가는 놀라운 수치와 기록들을 한눈에 보여준다. 단순한 비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그마한 곤충부터 커다란 동물, 건축물까지 우리 주변의 사람과 사물 등을 총망라해 '극단적인 비교'를 보여주면서 다양한 지식과 개념들을 습득할 수 있도록 했다. <키다리·1만3000원>



▲빨간색은 어디에 있을까?=소설가 최인호 씨가 쓴 창작동화. 어느 날 도단이는 엄마한테서 꿈에도 그리던 크레파스 한통을 선물 받았다. 그런데 빨간 크레파스를 잃어버린 도단이, 크레파스를 찾아가는 길 끝에서 무지개와 마주치는 데... 과연 하늘만큼이나 맑고 순수한 도단이의 동심을 아름답게 그렸다. <처음주니어·1만원>



▲헤린이 엄마는 초등학교 4학년=초등학교 4학년인 헤린이의 소원은 무지개 배우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엄마는 공부만을 강요하며 헤린이를 매일같이 학원으로만 몰아넣는다. 그러던 어느 날, 문자 메시지로 날아온 이상한 쿠폰을 보고 다급하면서 헤린이 엄마가 초등학교 4학년 아이가 되어버리는데... <가문비어린이·9500원>



▲공부가 되는 한국사=우리 조상이 그린 명화를 해설과 함께 담았다. 고대미술부터 고려 시대의 불화, 조선의 산수화, 조선 후기의 민화까지 다양한 장르의 명화를 집대성했다. 시대를 대표하는 화가들의 공민왕, 안견, 신사임당, 윤부서, 이중섭 등은 한 장으로 구성해 자세하게 다뤘다. <아름다운사람들·1만8000원>



▲유네스코와 함께 떠나는 다문화 속담 여행=우즈베키스탄, 인도, 필리핀, 중국, 몽골, 일본 등 우리와 문화적인 교류가 많은 아시아 8개국의 문화를 음식, 옷, 기후, 동물, 식물, 종교, 풍속 등의 주제로 나눠 각 주제와 관련된 속담을 통해 풀었다. 각 속담과 관련된 독특한 문화적인 배경도 함께 설명했다. <대교출판·1만2000원>



▲산과 달이 만나는 곳=중국어 미국인 그레이스 린의 장편 동화. 지난해 미국의 권위 있는 아동 문학상인 '뉴베리 어너상'을 받았다. 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는 무실산 기슭 마을에 사는 소녀 '민리'가 아버지로부터 신비로운 옛이야기를 듣고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을 물어보기 위해 '달의 노인'을 찾아 길을 떠난다. <블루나무·1만1000원>

▲탈춤소녀 김병만=장애인을 다룬 동화를 주로 쓰는 작가 고정욱 씨의 신작. 탈춤 계승자 집안의 손자 병만이는 우리 것을 소중히 하고 보존하는 마음을 갖고 자란 아이이다. 그러던 병만이가 어느 날 텔레비전에 나온 브레이크댄스를 보고 한눈에 반한다. 이후 탈춤 연습은 안하고 브레이크댄스 생각에만 골몰하는데... <고요아침·9000원>

인간의 삶과 뗄 수 없는 '돈의 존재감'

돈의 인문학

김찬호 지음



"국민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한 정치인의 이 말은 개개 소재로 활용될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또 현대 사회에서는 "돈 많이 벌어라" "대박나라"는 등 돈과 관련된 덕담이 크게 늘었다.

우리에게 돈은 어떤 존재일까? 성공시대 초빙교수 김찬호씨의 신간 '돈의 인문학'은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희한한 발명품인 돈에 대해 탐구한다. 인간의 삶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맺어온 돈의 실체에 둘러 쳐진 껍데기를 한 겹씩 벗겨낸다.

80개국 250만명에게 달을 분양해 600만달러 넘게 번 미국인 데니스 호프 씨의 사연 등 돈에 얽힌 재미 있는 사례를 소개하고, 인간다운 삶을 누리려면 돈과 나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 조언한다.

한국투병성기구의 조사에 따르면 '10년 감옥 사는 한이 있어도 10억원을 받으면 부패를 저지르겠다'고 응답한 중고생이 17.7%를 차지했다.

또 다른 설문조사에서는 '아버지에게 원하는 것은 재력 뿐'이라는 대학생이 44%라는 결과가 나왔고, 데이트할 때마다 포기된 아르바이트 시급 4000원이 떠올라 결국 연애를 포기한 '88만원 세대'의 서글픈 청춘의 풍경도 있다.

반면, 미국은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결혼식장을 폭격해 무고한 민간인 50여명의 목숨을 빼앗아갔는데, 그 보상금은 가족당 200달러였다. 9·11테러 희생자들에게 지급한 보상금의 6800분의1에 불과하다.

저자는 지갑이나 주머니 속의 돈은 물질로 만들어졌지만 이는 돈의 표시

일뿐 돈 자체는 아니라고 지적한다. 돈에 대한 욕망이 맹목적이고 끝이 없는 것은 돈이 물질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 돈은 소유 욕망을 채우기 위한 도구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미디어이자 개인과 세계를 묶어주는 사회 시스템으로서 본래 위상과 역할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저자는 "인문학적 사유가 지금 당면 급진적 어려움에 직접적 해결책을 주지는 못한다. 그러나 성찰의 끈을 놓아 버리면 우리는 더욱 무기력하게 돈의 위력에 휩쓸리고 빨려들게 된다. 인문학은 돈과의 관계를 리모델링하는 지혜와 용기를 불어넣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마지막으로 질문을 던진다. 자녀에게 돈 이외에 주고 있고 줄 수 있는 '그것'이 있는가, 자녀도 '그것'을 감사하게 받고 있는가. 대답도 곁들였다. 당신의 삶에 '그것'이 있다면 당신은 아주 행복한 사람이라고.

<문학다시읽기·1만3000원> /오광목기자 kroh@kwangju.co.kr



'돈의 인문학'은 인간의 삶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맺어온 돈에 대한 다양한 고민을 담고 있다. 사진은 돈을 소재로 한 드라마 '쩐의 전쟁'의 한 장면.

국제관계 속 한국사 재조명

미래를 여는 한국의 역사

강중훈 외 16명 지음



국제관계 속에서 한국사를 조명한 한국사 교양서 시리즈 '미래를 여는 한국의 역사'가 나왔다.

법제사부터 경제사, 생활사까지 각 분야의 권위자 17명이 3년간 집필에 매달려 완성한 것으로, 1권 '원시시대에서 남북국시대까지', 2권 '고려시대', 3권 '조선시대', 4권 '개항에서 강제병합까지', 5권 '일제강점기' 등 총 5권으로 구성됐다.

'건강한 시민을 위한 열린 한국사'를 표방하는 시리즈는 균형 잡힌 시각에서 역사를 바라보고 한국사의 주요 내용을 일국사(一國史)를 넘어 동아시아와 세계사의 관점에서 담아낸 것이 특징이다.

책은 조선의 집시가 된 거란 유민 양수척, 고려 시대의 중국 여행, 19세기 조선의 명품 소동, 하와이 이주 노총각들의 결혼 작전 등 시대별 교유사를 다채롭게 조망한다.

또한 조선시대 여성과 노비의 이름은 어떻게 지었을까, 한국인은 언제부터 매운 음식을 좋아했을까 등 사람들이 궁금해할 만한 내용과 남편 위에 군림했던 고려 여인들, 조선시대에 불어 닳던 외국 어휘 등 흥미진진한 이야기도 소개한다.

전문가들의 친절하고 자세한 해설은 물론 희귀 사진과 2000컷의 도판, 입체 지도 등 다양한 시각 자료를 수록해 보는 재미를 더했다. <웅진지식하우스·각 권 1만8000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다산의 장수비결은 '일과 청빈'

명문가의 장수비결

정지천 지음



다산 정약용은 40세에 유배를 당했다. 가문이 붕괴바산단 데다 외딴 곳에서 홀로 사느라 심신이 쇠약해졌다. 우울증과 갱년기 장애에 걸리기 쉬운 환경이었다. 그런데도 다산은 '목민심서'를 비롯한 수많은 책을 썼고 75세까지 건강하게 노년을 보냈다.

정지천 동국대 한의학과 교수는 다산의 장수비결을 식습관과 정신력에서 찾았다. 그는 개고기를 즐겼고 유배지에서 음식 수발을 들던 여인에게서 손자보다 어린 딸을 얻었다. 개고기로 정기를 보충하고 적당한 생생활을 즐겼기 때문에 갱년기 장애를 예방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정교수가 쓴 '명문가의 장수비결'은 조선시대 명문가들의 건강비결을 역사적인 배경과 생활습관 그리고 가문의 고유한 전통과 한의학적 근거를 통해 조목조목 밝히고 있다.

그에 따르면 명문가 자손들은 장수에 유리한 기본적인 자질을 갖추고 있었다. 부모에게서 건강한 유전자를 물려받은 데다 성리학 공부를 통해 마음까지 수련했기 때문이다.

명문가 선비들의 건강생활은 '현대건강생활백서'로 삼아도 손색이 없을만큼 과학적인 한의학적 진단과 처방은 물론 바른 삶의 지혜가 무엇인지를 일러준다. 명문가의 장수 비결뿐 아니라 조선시대의 문화와 풍습 등을 폭넓게 다루고 있어 당시 사대부들의 생활상을 한눈에 들여다볼 수 있다. <토트·1만8000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체 게바라의 '마지막 일기'

볼리비아 일기...

김홍락 번역



'리얼리스트가 되자, 그러나 가슴 속에 불가능한 꿈을 꾸자.' 혁명가 체 게바라의 이 말은 전 세계 많은 이들의 심장을 뛰게 만들었다.

체 게바라의 마지막 육성이 담긴 '볼리비아 일기-어느 혁명가의 최후'가 출간됐다.

책은 1967년 체 게바라가 볼리비아 바에그란데에서 총살된 직후 생포 당시 배낭에서 발견된 두권의 일기장을 옮긴 것으로 총살되기 하루 전까지 써내려간 글이다.

쿠바 혁명을 성공시키고 볼리비아로 날아간 그는 '오늘부터 새로운 여정이 시작된다'로 시작되는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

1966년 11월 7일 볼리비아 냥키우아수에 도착한 날부터 유로 계곡에서 마지막 게릴라전이 벌어지기 하루 전날인 1967년 10월 7일에 끝을 맺는 일기에는 체 게바라의 내면 세계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책에는 당시의 상황을 알 수 있는 귀한 사진 자료들이 다수 실려 있다.

번역을 맡은 볼리비아 대사 김홍락은 이 책을 번역하면서 체 게바라가 활동한 남동부 지역을 답사하고, 살아남은 볼리비아 게릴라 등과 인터뷰를 하는 등 노력을 아끼지 않았고 말미에 체 게바라에 대한 글을 함께 실었다. <학고재·1만6000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대인동상일부동산

좋은 자리에 상가 건물을 싸게 사실분

상가 전문소개업체인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광주시내 전지역 상가점점 포가 할 형성되어 월세가 다

른지역보다 더 많이 나오고 앞으로 더욱 좋아질 비전있

는 곳으로 1층 점포가 4~5칸 정도에 점포가 여러칸인

상가를 대표적이것만 골라 물건을 많이 확보하고 있어

일일이 광고하지 못합니다.

시장님께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실 때에는 상가전문 소

개업체인광주에서 오랜전통 있는 저희 부동산에 꼭 한번 방문 하시면 책임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FAX)223-1772 (TEL)011-602-2532 (광주은행 신촌점, 대인동 소정사건대편)

애들지식센터

사무실·연구소 분양 및 임대 <R&D특구>

정부종합청사 옆(첨단)

▶1·2층 복층구조

▶전용 32평, 총 64세대

▶각층 시스템 냉온방기 설치

▶권장업종

노무사, 관세사, 기업부설연구소, 컴퓨터개발업, 건축설계사무소, 토

목설계사무소, 디자인사무실, 종합건축사무실

기타 업종은 상담 즉시 입주 결정

▶성황리 입주중

공동중개 환영!!

010-2441-1610

금산공인중개사

상무신도심 상·업·용·지 (C1지역) 매매

■위치

- 상무병원, 롯데마트 건너편, 삼성화재빌딩옆 (4면 광로변)

■대지면적

- 약 2,850㎡ (180평 분할가능)

■3.3㎡당 매매가 - 1,300만원

■공동 복합 APT 주택가능 (최고 도시계획 변경)

■종합병원/상가/오피스 유흥가능

■장점

① 주상복합(공동 APT) 가능

② 광로변 최고 광고 효과

③ 롯데마트, 상무병원 건너 삼성화재 옆 최고의 상권

④ 최고의 교통 접근성

⑤ 광주시장 접근성과 광운간

⑥ 5·18 광로변

⑦ 상무신도심 중심상업 행회지구

※ 10층 신축건물옆 코너

H.P.011-601-5354

금당 공인중개사

■감정가 이하

·광산구 신촌동 주가2160평 공시지가5억 매도3억8천

·화정동 소정사 부근 4차선도로 342평 공시지가에 매도 9억

·신안동 상암지 310(94) 공시가3억3천 매도2억2천

·동구 6차선 도로와 3차선도로코너 상암지 589평 건평은637평 공시지가27억3천 매도 23억

·북구청 부근 대지207 건평420 공시지가7억7천 매도5억9천

·대인동 대지149 건평438 공시지가6억3천 매도 8억7천

·송정리 금호타이어부근 5887평 공시지가2억5천 매도2억8천

·양산동 대지155평과 주차장 48평 건평 284평 건평가13억7천 원선 매도 9억5천원

·광주역앞 일몰 대지108 건평383 건평11억9천 매도 6억7천

·화순군 남면 대곡리 도로점 농림지역 4782평 공장직할 감정가5억9천 대출 2억5천 매도 2억9천

·윤남동 삼성오피트 1955세대입구 미트 대지 429평 건평 248평 대출 15억 6천20천원 15억5천

·성암동 899평 무인텔 직할 공시지가23억3천 매도 18억3천

·화정동 4층 상가주택 대지 68 건평 145 매도 3억4천

■매도·교환

·무연타운 4차선도로 195평 교회, 병원, 학원등 직할 7억2천

·화정동 4거리 6차선 도로변 주차거 480평 매도16억

·화순군 능주면 소재지 주택 대지 100평 수리해(이월) 1900만원

·화순군 동면 사성리 별장촌 250평 경관주택 1억9750

·남평읍 교리리 버스도로점 211평 주택과공정있음 1억6천8백

·전원주택지, 화순 남면 사평리 233평 경관주택 4천만원

·신수동 호남맨션 2중주거지 220평 사할필리직할 매도2억5천

·하남공단 도산동 자연녹지 506평 공장직할 3억8천

·부근군 부인동 아파트 부지 1054평 11억

T. 222-4994, 010-2632-5659, 011-782-6266 (동구 금당동 5가 123-6, 우리은행 4거리 1층)

현대공인중개사

토지 급 매매

▶서구 마북동, 생산녹지, 3002㎡(908평), 매매가 15억원대출 농협7억 김대중컨벤션 인근, 교회

식당 창고 공장 용도다양

광산구 토지 매매

▶광산구 양동, 계획 관리지역, 28,845㎡(8,725평), 토지 전체면적중15,818㎡(4,784평)전용 되어있음,건축물637.46㎡(192.83평), 현재 쉼

매장, 적합한 용도 : 기도원 수련원 공장 창고 사회복지시설(요양원, 요양병원), 전원주택 부지로 개발 가능, 매매가 협의 후 결정

▶송학동, 계획관리지역, 2차선도로에접.21914㎡(6,629평) 매매가22억

수익성 좋은 상가건물 매매

광산구 우산동, 대지321㎡(297평) 건물 지하1층 지상6층 1326㎡(401평) 임대 내용 : 보증금2억1천5백만원 월 740만원(부기기차세 별도), 아파트 2,300세대인근, 대출 3억원, 매매가12억원

■본 광고물건은 전속 계약 된 물건임■

T. 062)371-1900, 010-2006-0115 상무 우리병원에서 50m지점 www.85858949.co.kr

호남랜드공인중개사

상무지구 시청앞 내공사광주전남지사옆 유지빌딩 501

준공된 태양광발전소 구함. 용량 100 - 1,000KW.

무등산 전원주택지 북구 화암동 대지433㎡(131평), 전입.1994㎡(603평) 구 주택2동, 매매가 1억6,000만원, 조망 경관양호

쌍촌동 2차선도로 나대지

서구 쌍촌동 2차선도로변 나대지 513㎡(155평), 제2종일반주거지역매매가 3.3㎡당 235만원, 카센터, 식당, 업무용빌딩 적합.

쌍촌동 나대지

서구 쌍촌동 호남대 건너편 구정관사 2,992㎡(905평) 제1종일반주거지역, 10m진입로, 매매가 상담협의, 도시형생활주택, 종교시설, 요양원적지,일부 분할가능.

상무지구 나대지(업무용지)

상무지구 시청앞 부근 20m 도로점할, 993㎡(300평),매매가 18억, 회사사무, 업무용빌딩.

첨단 보훈병원앞 자연녹지

광산구 신암동 보훈병원앞 9,722㎡(2,941평) 3.3㎡당 58만원, 자연녹지지역, 분할가능, 전원주택, 요양원시설, 기타.

건물매매(용봉지구)

신안동 용봉지구 옆 대지367㎡(111평), 3층, 연면적598.8(181평) 매매가75억,보증금6,000만원 월330만원 근린생활시설 입점.

서광주역 뒷 자연녹지

면적 3,835㎡(1160평), 4m,진입로, 매매가 3.3㎡당 65만원, 현재 임야.

010-3616-8698, 062-233-2222

중앙공인중개사

♣ 상가건물

☆.보증금 : 10억원 월세 : 4,300만원(부가세별도) 매매가 : 73억원

☆.보증금 1억 월세 2,400만원(부가세별도) 오피스텔 매매가 : 32억원

☆.보증금 : 8억2천 월세 : 1,330만원(부가세별도) 매매가 : 28억원

☆.보증금 : 1억1천 월세 : 350만 매매가 : 6억7천

♣ 전원주택

☆.광산구 오운동 대지 : 322㎡ 건물 : 95㎡ 매매가격 : 2억3천만원

☆.광산구 오운동 대지4,926㎡ 건물 : 66㎡ 매매가격 : 2억3천만원

☆.담양군 대전면 한재골 대 : 1,330㎡건 : 60㎡ 매매가 : 2억8천만원

☆.담양군 수북면공산리 전원주택단지 내 대지654㎡ 매매가 : 1억2천8백만원

♣ 대지.전.담.임야

☆.치평동 대지 : 370㎡ 매매가 : 13억5천

☆.미륵동(30m도로점)대1,350㎡매매가 : 22억원

☆.임춘동 정학마을대 : 3,600㎡ 매매가4억9천

☆.덕흥동 생산녹지 담 434㎡ 매매가 1억7천

☆.남구 월성동농로포장도로 코너 3,500㎡ 매매가 1억3천7백만원

☆.장성남면 임야 : 13,500㎡매매가 : 4억5천만원

♣ 공장부지

☆.광산구 양동(계획관리지역)잡종지 : 11,856㎡ 매매가 : 7억9천만원

062-374-5945 010-3162-4989